

전남교육청, 학생·교육현장 지원 중점 조직개편 단행

본청 '정책 중심' 체계 가동 지원청 행정력 강화...7월1일부터

전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교육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기능 확대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 중심으로의 본청 기능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교육지원청은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기능을 확대한다. 기존 '학교

지원센터'의 명칭을 '학교맞춤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장학·강진·함평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교원 호봉업무, 학교 갈등 업무 등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 업무를 경감해나간다.

또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의 고등학교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일반계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시 지역 고교감사 등을 시작으로 이후 인사업무 등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과에 건강행정팀을 설치하고 교육복지 업무를 학교맞춤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등 교

육지원청의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직속기관은 본청과의 기능 업무 연계를 추진한다. 본청의 집행·운영 업무를 직속 기관으로 이관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특화시키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청은 정책 중심 본연의 역할로 전환한다. 기존 '3국 2관 1단 15과 65팀'에서 '3국 3관 12과 58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조정된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해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책·예산 기능이 연계된 기획조정

관을 설치해, 교육현장에 필요한 핵심 정책들을 신속하게 결정·안착시키고, 기관·부서의 업무 조정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서의 업무를 통합·폐지해 본청 전 부서가 정책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등 업무 효율화를 통해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대응한 교육발전특구팀, 학부모협력팀, 디지털인프라팀 등을 설치하고, 미래형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워크'도 연계해 추진한다.

김대중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

은 주민직선 4기 반환점을 맞아 전남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글로벌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재정립해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교육청, 다문화 학생 위한 성폭력 예방 자료 배포

베트남, 중국 등 12개 언어로 보급

광주시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12개 언어로 된 '다문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다문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자료는 다문화 가정의 성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 절차 안내 등을 위해 제작됐다. 자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담법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 수칙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성폭력 사안 처리 방법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 기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적·연령 역시 다양해졌다.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고, 중국, 필리핀 순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3247명, 중학교 1143명, 고등학교 494명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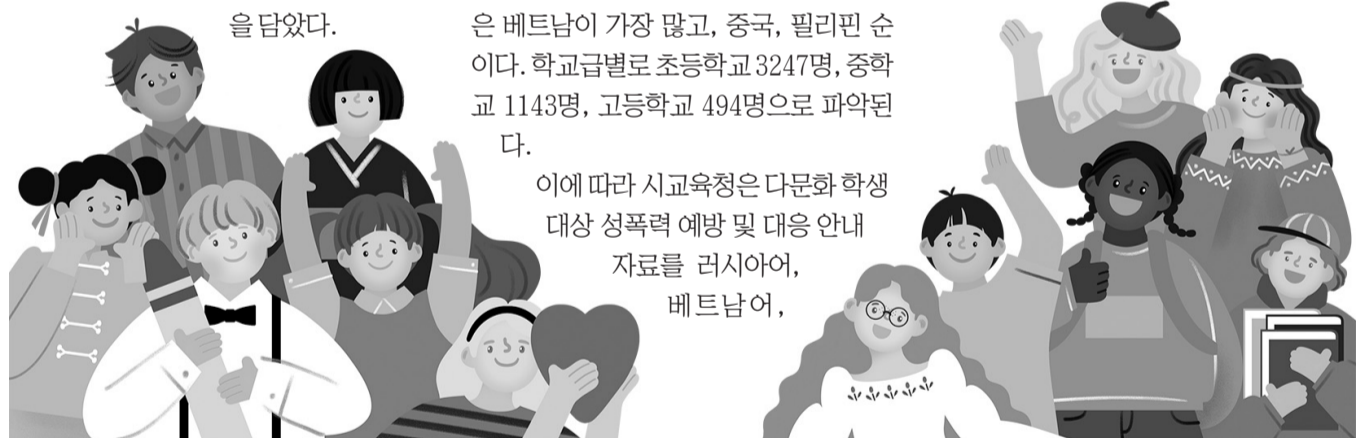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자료를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총 12개 언어로 보급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자료가 다문화 가정의 성폭력 예방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장 교원이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상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 "혁신적 포용교육은 학생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며 "이번 다국어 안내 자료가 다문화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전남교육청, 독서여행 '책톡톡 마음버스' 운영

순천 좌야초서 그림책 읽고 대화

전남도교육청이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달 30일 순천 좌야초등학교에서 특별한 독서인문여행 '책톡톡 마음버스'를 운영했다.

'책톡톡 마음버스' (Book Us)는 김대중 도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을 찾아 책 읽어주는 일일 선생님이 돼 그림책을 읽어주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인문교육의 하나로, 김대중 교육감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인 '대중교통(敎通) 현장 출근'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김 교육감은 좌야초 1학년 123명의 학생들에게 "멋진 답이 될거야 (저자 진경과 진주)를 읽어주며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기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책을 읽은 후에는 동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꼭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책 '틀려도 괜찮아'를 함께 읽었다. 김 교육감은 "학교와 교실은 틀려도 괜찮은 곳, 틀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아이들의 순수



전남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순천 좌야초등학교에서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톡톡 마음버스'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한 시간을 엿볼 수 있는 독후 한줄평, 궁금점 등을 이야기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돼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책톡톡 마음버스'의 교육감 추천 도서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나를 찾는 '난난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라는 '파닥파닥 해바라기'가 각각 뽑혔다.

김 교육감은 "산골 곡성에서 나고 자란 저의 유년 시절의 친구는 책이었다. 책을 읽으면 가보지 못한 곳에 갈 수 있었고, 다른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고,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가며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